

# 북청 물장수



김준영의 청명광나

필자가 젊은 시절,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이 책을 한권 빌려 주었다. 책의 내용은 이러했다. 옛날 무위도식하며 사는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문득 자신도 밥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특별한 재주가 없는 청년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청년이 사는 동네는 물이 귀했다. 동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강에서 물을 길러 와야 했다. 청년은 물을 길러 와서 팔기로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돈을 버는 재미가 생겼다. 청년은 더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런데 너무 무리했더니, 몸에 탈이 났다. '나도 결국은 늙을 텐데, 계속 물장수를 할 수는 없겠구나.' 고민하던 청년은 파이프로 강과 동네를 연결했다. 청년은 강에서 흘러온 물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이 책의 말미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더 많이 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돈을 많이 벌기 위

해서는 청년처럼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돈이 저절로 굴러오게 해야 한다.' 어찌 보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며칠 후, 지인을 다시 만났다. 책의 내용이 좋았다고 하자, "선생님께서 꼭 맞는 파이프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카탈로그를 꺼내 들었다. 장황한 설명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단단계 판매를 권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구한말까지 우리나라에도 물장수가 있었다. 특히 서울의 물장수들 중에는 함경도 북청 출신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을 '북청 물장수'라 불렀다. 북청 물장수들은 새벽부터 서울의 구석구석에 식수를 공급했고, '성실'의 대명사로 통했다.

얼마 전 어느 목사가 3천억대의 불법 단계를 혐의로 고발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실 단단계 사기와 폰지 사기는 잇을 만 하면 터지는 사건이다. 이제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질 만 한데,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 해답은 목사의 말에서 추정할 수 있다. 목사는 '나는 놀아도 회사가 존재하는 한은 돈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즉 평생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겠다는 유혹이었다.

더구나 피해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이었다. 기업들은 위축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세상.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시던 어르신들은 여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절실했을 것이다. 그래도 인생 경험 많은 분들인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해 보았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 모른다. 그러나 이성적인 의심과 불안한 감정이 부딪히면, 대부분 불안이 이성을 물리치게 된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단단계 사기와 폰지 사기는 약자의 공포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되는 행운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북청 물장수의 성실함'이 파이프라인이 되어주는 세상일 것이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그리고 팍팍해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북청 물장수의 성실함만으로는 살아가기는 힘들어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기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은 나만 느끼는 것일까?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 치솟는 비용에 발목 잡힌 해상풍력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해상풍력이 작은 면적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너무도 높은 설치 비용으로 인해 그 성장이 지지부진한 현실이 안타깝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전체 에너지믹스의 약 23%를 차지하며 주요 발전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에너지 관련 업계들은 풍력 발전량을 늘리는 데 집중 중이나, 여전히 해상풍력 사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설비와 건설 비용이 치솟으면서 여기저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설

치할 선박의 대수가 확정돼, 설치비와 해상풍력 케이블 연결 비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장은 더딘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 현재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설비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는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원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해상풍력발전 단지 설립 또한 비용압박이 크다.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에 따르면 터빈과 같은 부품 및 장비와 인건비 등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비용은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였던 전남 영광 낙원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 6월

좌초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전남 영광 낙원 프로젝트는 사업비 2조3000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였으나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손을 뗐다. 사업 주체였던 서부발전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자 490억원 규모의 출자를 철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의 지원과 금융 솔루션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 기관이 나서서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차액 지원제도를 유지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 간의 경쟁이 가능한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이 우리 미래 에너지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할 때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17일 (음 6월 12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볼로스독이 발생하지만 금세, 48년생 추억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 60년생 수업을 하려 물가에 왔으니 해업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 72년생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 84년생 속 시원함 잃은 이가 썩 빠지는 기분.
- 소** 37년생 돌팔매질을 하면 큰일 난다, 49년생 가뭄에 대비 옷감이 일이 잘 해결, 61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73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경험으로 삼아라, 85년생 보라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 호랑이** 38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50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62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74년생 말살이는 사이 기회도 날아가니 조심, 86년생 적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주변도 경계해야 한다.
- 토끼** 39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크다, 51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63년생 운이 막히니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75년생 지나가는 바람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87년생 낯말은 새가 듣고 범말은 쥐가 들으니 말조심.
- 말** 40년생 위기를 겪으며 중심 부분을 깨닫는다, 52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64년생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으니 잠시 지체, 76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시작이 우선으로 필요, 88년생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서.
- 뱀** 41년생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해보자, 53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니 행복한 하루, 65년생 자신이 옳다 해도 우기지 말아야 현명, 77년생 혼자만 바쁘고 남들은 손 놓고 있으므로 지금이 기회다, 89년생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고 저축 시작을.
- 말** 42년생 전달래와 산철쭉은 같은 꽃이기는 하지만, 54년생 호랑이 무서운 줄 알고 덤벼라, 66년생 바쁘게 걸어가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78년생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90년생 직장에 대한 불평은 누워서 침 뱉기.
- 양** 43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 55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67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79년생 오늘 불길하니 매입은 다음에, 91년생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께라 했으니 말조심을.
- 원숭이** 44년생 동료와 항상 말조심, 56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68년생 획기적인 발상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80년생 운을 바꾸려면 집안 청소를 하고 환기도 시켜라, 92년생 약속은 신의이니 작은 약속도 신심으로 이행.
- 닭** 45년생 돼지를 사기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57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69년생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야 나옵니다, 81년생 급하지만 감정절제를 해야 일이 성사, 93년생 진실이든 최상의 답은 아니니 포용이 중요할 것.
- 개** 46년생 자식이 자랑거리를 잔뜩 가져온다, 58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 70년생 인생에서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82년생 괴로운 상처는 나야도 흉터는 남는다, 94년생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라.
- 돼지** 4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9년생 친구와 식사를, 71년생 원하는 것이 없으니 얻을 것도 없다, 83년생 썩은 나무에 무엇으로 조각할 수가 있겠는가, 95년생 감탄고토프甘香土 달린 삼키고 쓰면 뱀는 것이 인생사이니.

## 김상회의四季 호모사피엔스

필자의 사찰 율장사 신도분의 손자에 관한 얘기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어린 손자는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잘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러닝셔츠를 물에 적셨다가 짜서 입고는 침대에 누웠다. 처음엔 등도 시원해 좋아하며 누웠으나 조금 지나자마자 침대가 눅눅해지고 누웠던 자리도 열로 더 뜨끈해지는지라 밖으로 나와서는 엄마에게 SOS를 청했다. 처음엔 좋아 보였어도 행복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마냥 좋은 일만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삶의 속성이다.

음식을 먹지만 일정 분량을 넘기면 과식으로 힘겨워지고 잘 씹지 않으면 체하거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한다. 인류의 시조로 알려진 호모사피엔스가 덩치 큰 코끼리 같은 동물보다 힘도 약하며 사자처럼 웅맹하지도 않은데도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협동 정신에 있다고 보는 인류학자도 있다. 무릇 문명을 이루고 모든 종에 우선하는 인류를 이룬 이후에도 나라가 됐던 개개인의 삶이 됐던 살아나가자면 윈하든 윈하지 않던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각색이다.

서두에 신도분의 귀여운 손자 얘기는 한바탕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기업이나 국가적 경영의 문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판인데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 글썩, 답은 화합과 협동이 아닐까 싶다. 화합은 자타가 함께 좋다는 의미이다. 정치가 협치 된다면 국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국가나 기업은 물론 각 가정과 개인 사이에서도 자리아타라고 생각된다면 좋은 결과 최소한 결점이 제일 적은 선택이라 판단된다. 이는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오랜 세월 살아오며 얻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일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늬 스토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